실용주의 프로그래머 데에티드 메나스 앤드큐 현트 지율 정지용 용입 | 검상한 감수





Pragmatic Programmer

20주년기념판 **20**th Anniversary

1장. 실용주의 철학

2장. 실용주의 접근법

실용주의 개발자가 되려면

- 1.어떤 일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함
- 2.개발 과정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을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평가해야함

Tip1. 자신의 기예(craft)에 관심을 가져라.

실용주의 개발자가 갖는 여러 특징 중 공통적이면서 기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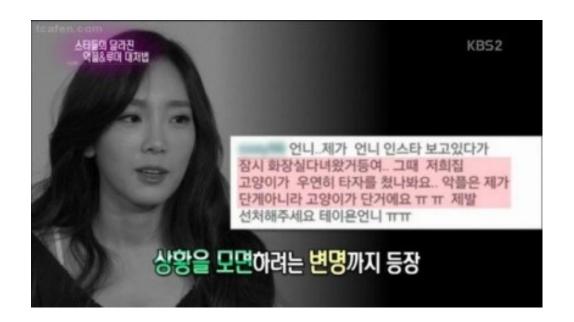
- 새로운 것에 빨리 적응
- 호기심
- 비판적인 사고
- 현실주의자
- 다방면에 능숙

Tip3. 자신의 당신에게는 agency(자율성)가 있다.

- 당신에게는 스스로의 행동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음
- 현재 조직 내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등 조직의 변화를 꾀하기 잘 안되면 이직~
- 기술에 뒤쳐지는 기분이 든다면 여가 시간을 쪼개서 재미있어 보이는 것을 공부하기
- 우선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기회를 잡아라

Tip4. 어설픈 변명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.

-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.
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은지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.
- 고양이가 내 소스 코드를 삼켰어요
 -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무언가를 비난하거나 변명을 만들어 내지 말라



Tip5. 깨진 창문을 내버려 두지 말라.

- 소프트웨어의 무질서도가 증가할 때 우리는 이를 '소프트웨어의 부패'라고 일컫는다.
 - 원영적 사고: 기술 부채 <- 매일 하는 합리화...
- 나쁜 설계, 잘못된 결정, 혹은 형편없는 코드 등이 모두 깨진 창문이다.
- 발견하자마자 고칠 수 없다면 주석처리, 더미 데이터와 같은 판자로 덮는 것만이라도 하라.
- 부정적인 생각이 팀원들 사이로 퍼져서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



깨진 창문 이론: 깨지 우리찬 하나를 반치해 드며 그 지절

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, 그 지점을 중심으로 <u>범죄</u>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

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9%A8%EC%A7%84_%EC%9C%A0%EB%A6%AC%EC%B0%BD_%EC%9D%B4%EB%A1%A0

Tip6. 변화의 촉매가 되라

- 무엇을 해야 하는지,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가 있다.
- 하지만 일에 착수하려고 허락을 구하는 때부터, 뭔가가 지연되거나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.
 ⇒ 시작 피로, 한번에 크게 바꾸려고 하면 좌절됨.
- 큰 무리 없이 요구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라. 그리고 그걸 잘 개발하라 → MVP
- 미래를 살짝이라도 보여 주면 사람들은 도와주기 위해 모여들 것이다.

Tip8. 품질을 요구 사항으로 만들어라

- 오늘의 훌륭한 소프트웨어는 많은 경우 환상에 불과한 내일의 완벽한 소프트웨어보다 낫다.
- 사용자에게 뭔가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것을 일찍 준다면,
 피드백을 통해 종국에는 더 나은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.
- 완벽하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장식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다듬느라 망치지 말라.
 완벽해지기란 불가능
- 버전 관리를 잘 해야겠다..(물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음)

Tip9. 지식 포트폴리오에 주기적으로 투자하라

-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은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임
- 포트폴리오 만들기
 - 주기적인 투자
 - 다각화
 - 리스크 관리
 -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
 - 기술 검토 및 재조정
- 지식 자산 쌓기
 - 매년 새로운 언어 배우기
 - 기술 서적 읽기
 - 수업 듣기, 지역 모임 참여
 - 트렌드 알아보기
- 당장 프로젝트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고 확장

Tip12. 무엇을 말하는가와 어떻게 말하는가는 모두 중요하다.

- 개발자로서 우리는 여러 입장에서 소통해야 한다.
 - 최종 사용자와도, 기계와도, 다음 세대의 개발자들에게도...
- How?
 - 청중을 알기, 피드백 모으기
 - 무엇을 말할지 미리 계획하고 개요를 작성하기. 듣는 사람을 고려하기
 - 말하는 시점도 적절하게
 - 문서를 만들 때 내용에만 집중하지 말기. 멋져 보이게 하기
 - 청중을 참여시키기

Tip14. 좋은 설계는 나쁜 설계보다 바꾸기 쉽다.

- ETC(Easier to Change)원칙을 따르기
 - 결합도를 줄이면 → 관심사 분리 → 각각이 바꾸기 쉬워짐
 - 단일 책임 원칙 SRP → 요구 사항이 바뀌더라도 모듈 하나만 바꿔서 반영 가능
 - 왜 이름짓기가 중요? → 코드 읽기 쉬워짐 → 코드를 바꾸려면 코드를 읽어야 함
 - 의식적으로 ETC라는 가치를 적용하려고 노력해야함.

- 지식은 고정적이지 않고 이해는 날마다 바뀜 -> 늘 유지보수 모드에 있음
- 명세와 프로세스, 개발하는 프로그램 안에 지식을 중복해서 넣는다면?
 - -> 유지보수가 어려워짐
- DRY 원칙: 모든 지식은 시스템 내에서 단 한 번만, 애매하지 않고, 권위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.

• 코드의 중복?

```
def print_balance(account)
 printf "Debits: %10.2f\n", account debits
 printf "Credits: %10.2f\n", account.credits
 if account fees < 0
   printf "Fees: %10.2f-\n", -account fees
 else
   printf "Fees: %10.2f\n", account fees
 end
 printf " ----\n"
 if account balance < 0</pre>
   printf "Balance: %10.2f-\n", account.balance
 else
   printf "Balance: %10.2f\n", account.balance
 end
end
```

```
def validate_age(value):
    validate_type(value, :integer)
    validate_min_integer(value, 1)

def validate_quantity(value):
    validate_type(value, :integer)
    validate_min_integer(value, 1)
```

• 문서화 중복

```
// 사용자의 나이를 1 증가시킴
function increaseAge(user) {
  user.age += 1;
}
```

• 데이터 중복

```
class Line {
   Point start;
   Point end;
   double length;
}
```

start와 end를 알면 length는 자동으로 결정

비용이 많이 드는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하지 않기 위해 그냥 저장하면 안되나?

→ 대신 바깥 세상에 DRY 원칙 위배를 노출하지 말자

```
class Line {
  private Point start;
  private Point end;
  private double length;
  public Lint(Point start, Point end){
   this start = start:
   this end = end;
   calculateLength();
 void setStart(Point p) {this.start = p; calculateLength();}
  void setEnd(Point p) {this.end = p; calculateLength();}
  Point getStart() {return start;}
  Point getEnd() {return end;}
  double getLength() {return length;}
  private void calculateLength() {
   this.length = start.distanceTo(end);
```

Tip18. 최종 결정이란 없다.

- 프로젝트 초기에는 최종 결정을 줄여야 함
 - 초기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못 함
 - 중요한 결정은 쉽게 되돌릴 수 없음
- 결정은 돌에 새겨진 글씨가 아님
 - SW 개발 속도는 요구 사항, 사용자, HW 변화를 앞지를 수 없음
- 선택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구조 필요
 - 즉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필요

Tip20. 목표물을 찾기 위해 예광탄을 써라.

- 즉 소프트웨어에서는 가장 복잡한 곳의 코드를 제일 먼저 짜보는 것, 테스트 해보는 것
- 예광탄 코드는 기능은 없지만 골격이 만들어지는 최초의 코드
 - -> 일관성, 생산성 증대, 디버깅 및 테스트 속도 증가
- 예광탄은 지금 맞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꼭 목표물을 맞추는 것이 아님, 목표에 맞을 때까지 개발
- 프로토타입은 나중에 버리는 코드를 만들지만,
 예광탄 코드는 완결된 코드이며 골격의 일부가 된다.



Tip21. 프로토타이핑으로 학습하라.

-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이다.
- 프로토타입의 핵심: 생산한 코드가 아닌 이를 통해 배우는 교훈,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할지 아는 것
-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중요한 점은 증명을 한 후에는 프로토타입을 버려야 한다는 것
 - 나무 자동차를 타고 러시아워에 운전할 수는 없다.

Tip23. 추정으로 놀람을 피하라.

- 추정하는 법을 배우고 추정 능력을 계발하여 무언가의 규모를 직관적으로 짚을 정도가 되면, 추정 대상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음
- 초기 기능의 구현과 테스트를 마친 후, 이를 첫 번째 이터레이션의 끝으로 삼기
 - 주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터레이션의 수와 각 이터레이션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처음의 추측을 다듬기